

2월에 화랑으로 꽃놀이 한번 떠나볼까

이호신 화백, 순례길서 만난 사계절 꽃으로 인드라마 엮어내는 '화신'展



이호신 화백은 '화신'전을 통해 사계절 꽃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벌써 입춘이 지났지만, 아직 꽃을 보기는 힘들다. 하지만 서울 삼성동 중앙갤러리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것 없이 사계절 꽃이 만연히 피어있다. 이호신 화백은 2010년 '진리의 숲 천불만다라'에 이어 올해 '화신'이란 제목으로 전시를 개최했다.

전시실 안은 금방이라도 꽃향기에 취할 것만 같아 꽃 그림으로 가득하다. 매화는 물론이며, 수선화, 산수유, 짙레꽃, 차꽃, 호박꽃, 연꽃, 갈대, 민들레, 목화, 벚꽃까지 다양한 꽃들이 이호신 화백에 의해 온몸을 드러내며 태어났다. 이호신 화백은 순례 작가로 정평이 나왔다. 순례 길에서 만난 자연을 통해 삶의 진리를 포착하

고, 이를 그림으로 승화시킨다. 단순한 꽃 그림을 넘어 그 속에는 인간의 삶과 자연, 생명에 대한 경외가 인드라마를 이야기하고 있다. 전시는 중앙갤러리에서 2월 16일~3월 7일, 서울 가양동 겸재정선기념관에서 3월 10일~4월 17일 열린다. (02)538-1271, (02)2659-2206

-작년에는 '천불만다라' 전시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천불만다라 전시가 이번 작업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이번 전시의 가장 특징적인 점은 무엇인가?
천불만다라를 작업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게 됐다. 특히 기법이나 재료가 예

전보다 훨씬 확대됐다. 이번 전시작품들은 천불만다라를 작업하면서 배웠던 기법과 재료들을 많이 응용했다. 특히 채색화 부분에서 그 방법들을 많이 활용했다. 나는 이 점을 이번 전시의 가장 큰 수확이라고 생각한다.

-작품 준비에 앞서 항상 순례를 떠난다고 들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가?
보통사람들의 여행이 현장을 단순히 바라보는 것이라면, 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숨 쉬려고 노력한다. 직접 그 곳에서 자고, 먹고,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느끼려 한다. 그렇게 함께 숨 쉬어야 비로소 작업을 할 수 있다.

-이번 전시는 벌써부터 봄이 느껴지는 것 같다. 특별히 꽃을 주제로 한 이유라도 있나?
대관소찰(大觀小察)이란 말이 있다. 크게 보고 작게 살핀다는 뜻이다. 큰 산이나 마을에는 항상 작은 생명들이 살고 있다. 들꽃이나 이름 모를 풀처럼 작은 것들이 모여 산을 이룬다. 여러 산들을 돌아다니면서 작은 생명의 귀중함을 알게 됐다. 이번 전시의 주제를 꽃으로 잡은 것은, 흔히들 봄에만 꽃이 많이 피는 줄 알지만 꽃은 계절과 관계없이 항상 피어있다. 사람들에게 꽃이 항상 곁에 피어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

-꽃 중에서 특히 매화가 많이 등장한다. 매화가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매화는 사군자(四君子)중 하나다. 옛 선비들도 매화를 사랑했다. 매화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야만 피는 꽃이다. 나의 삶도 매화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겠다는 마음에서 매화를 그렸다.

-꽃 중에서 특히 매화가 많이 등장한다. 매화가 어떤 영감을 주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궁금하다.

-매화는 사군자(四君子)중 하나다. 옛 선비들도 매화를 사랑했다. 매화는 매서운 겨울이 지나야만 피는 꽃이다. 나의 삶도 매화처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잘 극복하고 이겨나가겠다는 마음에서 매화를 그렸다.

-마지막으로 이번 전시에 대한 소감과, 앞으로 활동계획에 대해 한마디 부탁한다.

지금 전시 준비 외에 하는 일이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일이다. 이미 1년 4개월째 진행해 왔다. 하동, 구례, 남원, 함양, 산청을 오가며 그곳의 자연과 문화 유적의 흔적을 기록하는 일이다. 지금은 하동, 구례, 남원까지 작업을 마친 상태다. 이 일이 완성된다면 지리산의 자연과 문화유산을 회화로 기록한 최초가 될 것이다.

글=이은정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이은정 기자의 뽀뽀한 레시피② (Fun Fun)

곤드레나물밥

이제 나도 명절이면 어른들이 제법 일을 부러먹기 좋은 나이가 됐다. 그래서 어린 조카나 동생들과 함께 눈치 없이 TV나 보며 뽀뽀 거리면 바로 엄마의 따가운 눈초리가 내 머리에 박혀버린다. 밤 하나 주워 먹고, 꽃감 하나 물어뜯으며 주방 근처에 여슬렁여슬렁 거리는 사냥이라도 해야 그나마 미움을 덜 받는다. 그러다 우연히 엄마와 눈이 마주치면 어색하게 냉장고문을 뒀진다.

그렇게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냉장고 문을 번갈아 여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발등을 '쿵' 하고 내려찍었다. "아!"하고 외마디 비명과 함께, 발아래를 보니 봉지에 쌓여있는 시커먼 물체가 굴러다녔다.

내 발등을 찌고 도망간 놈이 무엇인가 하고 봤더니, 작년 봄에 엄마랑 아빠가 온 산을 다 뒤집고 다니면서 썼던 곤드레 나물이었다. 아마도 엄마가 작년에 캐다 놓은 나물을 삶아서 냉동실에 보관해 두신 모양이다. 생각해 보니 항상 늦봄의 우리

집은 나물냄새로 가득했다. 나물이 너무 좋으신 건지, 두 분이 금실이 너무 좋으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틈나면 엄마랑 아빠는 산을 다니면서 나물을 캐셨다.

배낭 한 가득 이름 모를 갖가지 나물을 캐 와서 앉은 자리에서 다시 뜯고 다듬고, 씻고, 삶기를 반복했다. 뭐가 그리도 좋으신지 모르겠지만, 두 분은 젖은 옷을 짙어진 채 그렇게 나물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며 정성스레 다듬으셨다. 나물을 따온 그날엔 항상 데친 나물과 고추장이 저녁밥상에 올라왔다. 우리 가족은 그렇게 식탁에 둘러 앉아 봄내음을 만끽하며 나물과 밥 고추장을 함께 맛있게 비벼 먹었다.

하지만 밥을 먹고 난 다음날이면, 항상 두 분 어깨와 다리에는 일명 파스라는 놈이 떡 하니 자리했다. 그런 식탁에 올라온 나물이 부모님의 땀이었던 사실을 미처 몰랐다. 이번 명절에도 여전히 엄마는 다리에 파스를 붙이신채 음식장만을 하셨다.



사진=박재원 기자

#알고가기 곤드레나물은 태백산 고지에 자생하는 산채다. 강원도 정선과 평창지역의 특산물로 매년 5월에 채취가 가능하다. 곤드레나물은 캐서 말린 후 저장하거나, 삶아서 냉동고에 보관하면 1년 내내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곤드레나물은 탄수화물, 칼슘, 비타민A 등이 풍부하며 지혈, 소염, 이뇨작용, 해열, 부인병 등에 약으로도 쓰인다.

재료는 이렇게 준비 하세요

곤드레나물 300g, 쌀 2컵, 들기름, 간장 3큰술, 깨 작은1큰술, 고춧가루 작은1큰술, 고추 반개

음식 만들기

- ① 쌀은 씻어서 적당히 불린다.
- ② 곤드레나물은 끓는 물에 살짝 삶은 후 건져내 물기를 빼고, 달구어진 팬에 들기름을 두르고 볶는다.
- ③ 불린 쌀에 나물을 함께 넣어 밥을 한다.
- ④ 간장과 깨 고춧가루 고추 등을 함께 섞어 양념장을 만든 후, 밥과 함께 비벼 먹는다.

보시의 장 문화의 장으로 거듭나다

통도사 박물관, '아산 정우 스님 기증유물 특별전'

문화포교의 장이자 대중 소통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는 통도사 성보박물관이 2011년을 맞아 '芽山 頂宇스님 기증유물 특별전'으로 문을 열었다.

이번 특별전에는 통도사 주지 정우 스님이 도처에서 수집해온 불교관련 성보들이 망라돼 있다. 정우 스님의 이번 기증

유물은 국가 보물로 지정된 유물뿐만 아니라 공예, 서화, 민속품 등 다양한 장르로, 국내외 유물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의 귀중한 유물 155여 점이 전시된다.

정우 스님은 평소에도 문화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극단 '신시'의 후원과 문화·예술발전에 힘써왔다. 성보박물관

관장 현근 스님은 "이번 전시는 정우 스님의 보시 정신을 알리고 많은 불자들이 스님의 귀중한 기증품을 친견할 수 있도록 마련한 자리"라며 "지금까지 야단법석의 문화포교와 달리 조용한 문화포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055)382-1001 이은정 기자



동자달마.

인터넷 게임 중독, ADHD 학생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는 학교!

산골작은학교 수오학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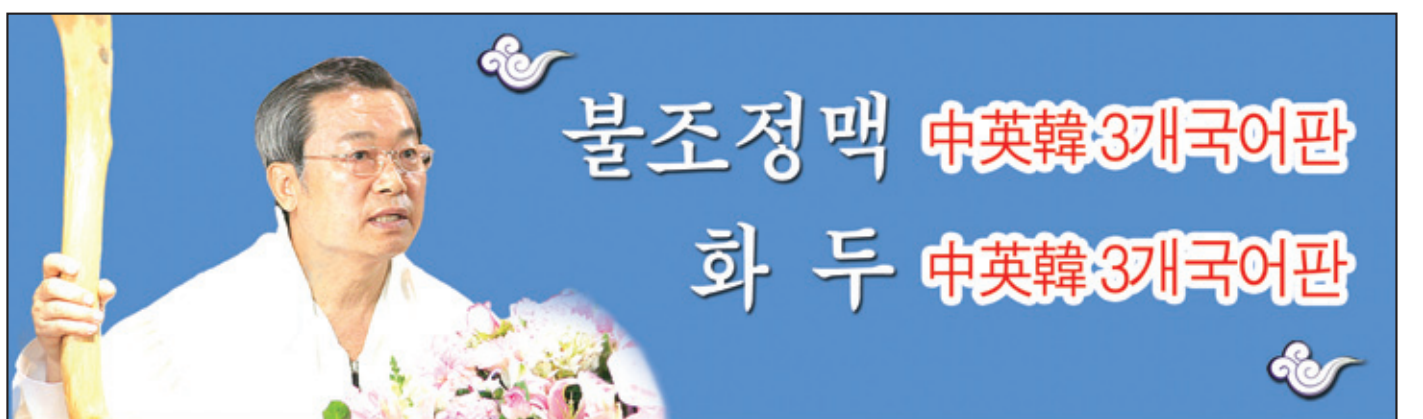
교육상담(교무실)
(054) 751-3721

우리 학당은 경주에 있는 서당형 대안학교입니다.

인터넷 게임 중독으로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학생,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로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받거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을 보살피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생활교육방식을 통해 배움을 몸으로 익히고 실천하는 공부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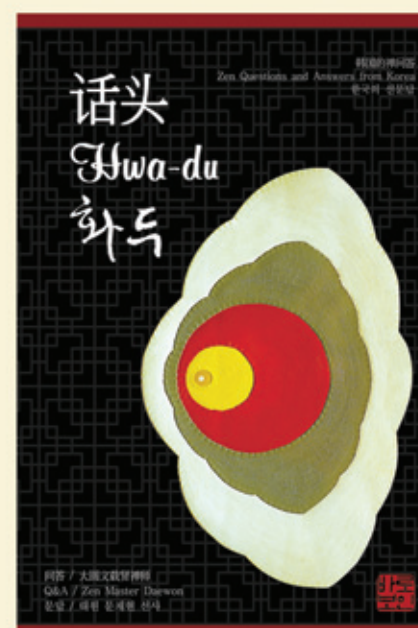
우리 학당은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인성을 회복하고, 자신의 꿈을 스스로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쁨을 함께 나눌 학생들을 모집 합니다.



불조정맥 中英韓3개국어판

화두 中英韓3개국어판

전강 대선사님 인가 제자 대원 문재현 선사님 저



3개국어판 < 불조정맥 >

종조 석가모니불로부터 현 78대에 이르기까지 불조정맥진영(佛祖正脈眞影)과 정맥전법계(正脈傳法偈)를 온전하게 갖춘 최초의 불조정맥서.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다년간 수집, 정리하여 기도와 관조 끝에 완성하였다.

3개국어판 < 화두 >

대원 문재현 선사님이 평생 동안 제자와 도반들, 선사님들과 나누었던 선문답. 현대에 생생히 살아있는 '화두'! 3개국어판으로 재출간되어 자랑스러운 한국의 선(禪)을 세계에 소개하고 있다. - 발간 예정

도서출판 바로보인 031-534-3373 www.zenparadise.com